

논단 및 사진교육 역사

이경민, 한국 근대 사진교육사 연구: 1910-1945

해방 이후 한국사진교육 역사: 1945-1974

한국 근대 사진교육사 연구: 1910-1945

이경민 /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우리나라 정규대학에 사진학과가 설치된 것은 1964년의 일이며, 미술대학의 교양강좌로 사진과목이 개설된 것은 그보다 빠른 195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처럼 우리나라 대학 내에 사진과목이 개설되고 사진학과가 설치된 것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1910년 황성기독교청년회(YMCA)에서 개설한 사진과를 기점으로 한다면 우리나라 사진교육의 역사는 근 100여년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진교육사에 대한 정리와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며, 특히 해방 이전의 근대사진교육에 대해서는 YMCA 사진과와 그 후신인 경성사진학강습원 그리고 이들 기관과 관련된 사진인사들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를 제외하고는 사진교육에 관한 전체적인 조망을 그려내지 못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사진교육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그에 대한 자료가 대부분 망실되었거나 거의 생산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 그나마 남아있는 것은 교재로 사용한 몇 권의 번역서와 강의노트뿐이며, 기억력에 의존한 구술 자료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조선에 대한 일제의 교육정책이 고등교육 대신 실용적인 기술교육에 치중한 결과 학리로서의 사진학은 불가능한 시대였으며, 따라서 조선은 일본에서 연구하고 생산한 사진기와 사진재료 나아가 사진이론과 담론의 소비지였다는 식민지적 한계를 처음부터 안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근대 사진교육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면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데, 이 글 또한 예외가 아니다. 다행히도 당시에 발행된 신문 속에 사진교육기관에 관한 기사와 광고가 다수 실려 있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까지 살펴 볼 수는 없었지만 그와 관련된 다양한 현상과 실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글들을 정리하여 체계적인 사진교육사 기술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1. 초기 사진교육기관의 등장 (1900년대-1910년대)

가. 교육서화관과 사진교육의 시작

사진교육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은 YMCA 사진과가 개설되기 3년 전인 1907년에 이미 발견된다. 7월 13일 원동(현 원서동)에 위치한 서우학회 내에서 관장 김규진을 비롯하여 양기훈, 권병수, 조석진, 안중식, 이도영, 엄태영, 김유탕, 박서양, 박주진 등 당대 내로라하는 서화가와 사진가 등이 참여한 교육서화관(敎育書畵館)의 발기회가 열렸다. 김규진의 개회 선언 후 서화관 운영에 관

한 제반 설명이 있었는데, 교육과정은 사자(寫字), 도화(圖畵), 사진, 음악 등이고 학생 연령은 10세에서 25세까지로 정해졌다.¹⁾ 개학은 입학지원서를 제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자, 도화, 독서 등의 시험과목으로 학생을 선발하여 7월 20일 하오 2시에 하기로 예정되었다. 교육은 정규과정과 특설과정으로 이루어졌으며, 정규과정은 미술을 위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일반 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이었으며 특설과정은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1-2개월간 이루어지는 단기과정이었다.²⁾

본관에서 사자, 도화, 사진, 음악을 교육하기 위하여 학원을 모집하오니 지원 입학하는 사람은 본년 7월 18일 이내에 지원서를 본관에 제출하십시오. 단 각 학교 학원 중에 지원인은 방학 간에 임시 수업함도 득함.

- 시험일시는 본월 19일 하오 1시오, 처소는 본관 내
-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음 : 사자, 도화, 독서
- 연령은 10세부터 15세까지
- 개학 일시는 본월 20일 하오 2시

복서원동 12통 12호 서우학회 내 교육서화관 고백³⁾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 미술강습소로 알려진 교육서화관은 미술 발달을 위하여 김규진과 김유탕이 주도하여 만들었으며, 미술과 사진 등 시각예술뿐만 아니라 음악까지 가르친 일종의 예술학교였다. 이곳에서 사진을 교수 과정의 하나로 정한 것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선진적인 교육 정책이었는데, 그것은 이곳의 관장이 7월부터 사진관 개설에 나서 한 달 뒤인 8월 16일 천연당사진관을 개관한 해강 김규진이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사진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 없다. 다만 김규진과 함께 천연당사진관 개설에 함께했던 사진사 박주진에게 사진교육을 맡기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 추측할 따름이다. 그런데 개학일인 7월 20일은 헤이그밀사사건으로 고종이 강제 퇴위된 날과 겹친다는 사실에서 당시 고종의 비서로서 궁내부에 관직을 두고 있던 김규진이 해임되면서 교육서화관의 개관 자체가 어려워졌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김유탕 단독으로 그해 9월 평양에 동명의 교육서화관(이후 협성서관(協成書館)으로 개칭)을 대동관 앞에 개설하였으며, 주로 서적과 각종 서화 그리고 학교 교육재료 등을 판매하였다.

이렇게 좌절된 사진교육은 1년 뒤인 1908년 천연당사진관에서 다시 시도되었다. 김규진은 그해 6월 24일 대한매일신보에 ‘천연당사진 확장 감가(減價)’라는 제하의 광고를 내면서 ‘본당에서 사진미술을 대확장하기 위하여 신식기계를 다수 들여왔고, 한편으로 학생을 무료로 가르치고 있다’고 알렸다. 다만 그 교육이 근대적인 교수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진사 수급을 위한 도제식 교육이었는지 확인되지는 않지만 사진교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서 김규진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진교육자라고 할 수 있다.

나. 황성기독교청년회 사진과의 설치

1) 「교육서화관 개회」, 『대한매일신보』, 1907.7.16 학생 연령과 관련해 동일자 『황성신문』에 게재된 교육서화관 광고에는 10세부터 15세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15세를 25세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2) 「미술학 창설」, 『황성신문』, 1907.7.10

3) 「학생모집광고」, 『황성신문』, 1907.7.16



중로에 위치한 YMCA건물(사진 중앙)

1903년 창립된 황성기독교청년회(YMCA로 약칭)는 선교 활동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했으며, 무엇보다도 교육사업에 일찍부터 나섰다. YMCA에서 교육사업을 시작한 것은 1904년 가을부터인데, 이때는 조선의 민족 지도자들이 이곳에 대거 가입한 해이기도 했다. 1898년 독립협회 해산 과정에서 체포되어 감옥살이를 했던 이상재를 비롯한 12명의 지도자들은 1904년 석방되자 YMCA 창설자의 한 명이었던 게일이 담임목사로 있던 연동교회에 입교한 후 바로 YMCA에 단체로 가입했으며, 여기에 당시 외부대신 서리로 등용된 윤치호와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김규식이 합세하여 YMCA는 명실공히 최고의 민족지도자들이 가담한 기독교 단체가 되었던 것이다. 특히 1905년 이상재가 제2대 교육부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교육사업은 본격화되었으며, 1904년 인사동에서 현재의 자리(중로 2가)로 회관을 옮긴 YMCA는 1906년 10월 학관을 설립하였다. 처음에는 이 학관의 학감에 윤치호를 초빙했으나 개성에 한영서원을 설립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하트포드 공업학교(Industrial Institution in Hartford)의 교장을 취임하고 YMCA 국제위원회 산업교육부 전문 간사로 일하고 있던 그레그(G. A. Gregg)를 YMCA 공업부 간사로 불러오게 되었다.⁴⁾ 1906년 가을에 부임한 그는 윤치호 대신 학관의 학감을 맡으면서 본격적인 공업교육에 나섰다. 사진기술자로서의 이력 때문인지 1910년 공예과 안에 목공과, 철공과와 더불어 사진과를 신설하기에 이른다.

4) 전택부, 앞의 책, 78-81pp., 106-110pp. 참조 정리

5) 「사진과정 설립」, 『대한매일신보』, 1910.1.20

중로청년회관 안 학교에서 사진과정을 특별히 설립하고 영국인 미술가와 미국 포와(布蛙, 하와이)에 유학하여 사진 찍는 법을 졸업하고 그곳에서 다년 영업하던 한인 최창근 씨를 고빙하여 일반 청원자를 교수한다더라.⁵⁾

● 사진과정 설립
중로청년회관 안 학교에서 사진과정을 특별히 설립하고 영국인 미술가와 미국 포와에 유학하여 사진 찍는 법을 졸업하고 그곳에서 다년 영업하던 한인 최창근 씨를 고빙하여 일반 청원자를 교수한다더라

이 기사가 게재된 1910년 1월 20일자 『대한매일신보』에는 황성기독교청년회학관 명의로 ‘사진 속성 대모집’ 광고가 동시에 실렸는데 ‘본국에 미술을 발전키 위하여 사진과를 특설하고 영인 교사와 미령 포와에서 사진술에 다년 종사하던 본국 교사가 교수한다’며 개설의 이유와 함께 교수진을 다시 밝혔다. YMCA 사진과 초대교사로 소개된 최창근의 이력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위의 기사와 광고를 통해서 작은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즉 그가 하와이에 유학하여 사진술을 배웠고 그곳에서 다년간 영업하다가 교사로 고빙되어 귀국했다는 것이다. 이

와 관련하여 하와이 이민사와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고 연구해온 이덕희의 자료집 『Korean Passengers arriving at Honolulu, 1903-1905』(2004)와 YMCA 사진과 제2회 졸업생인 민충식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1904년 6월 1일 이민선 콕틱(Coptic)호를 타고 하와이 호놀룰루로 건너간 당시 27세의 할아버 최창근으로 추정된다.⁶⁾ 이주노동을 떠난 그가 어떻게 사진술을 배웠는지 알 수 없지만 이미 그곳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한인기숙학교에 초빙되어 그곳에 마련된 사진연습소(사진견습소)에서 한인 학생들에게 사진술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런 그가 1909년 8월 11일 이민선인 코리아 선편으로 다른 동포 23명과 함께 돌연 귀국길에 올랐는데, 그것은 외국인 간사의 간섭 없이 한국인만으로 독자적인 교육사업을 하고자 했던 YMCA 교육부 위원회에서 하와이 감리교 선교부와 한인사회가 교섭하여 설립한 한인기숙학교에서 사진교사로 있던 그를 책임자로 판단하고 고빙한 것이 아닌가 싶다.

1910년 6월에는 최창근의 지도아래 YMCA 사진과의 첫 번째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고응한, 이의진, 백영옥, 추교현, 고기성, 한택리, 김동일 등 모두 7명이며 이들 대부분은 졸업 후 사진업에 종사했다. 사진과의 수업 연한은 시기별로 조금씩 달랐는데, 처음에는 6개월 과정이었다가 1912년에는 3개월, 1914년에는 5개월로 바뀌었다. 수업은 성경 2시간, 사경 1시간, 특별과정으로 화학과 특 별강연 4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35시간은 모두 작업시간으로 채워졌다. 교재로는 지도교사가 작성한 영문과 국문 등으로 씌어진 사본이 사용되었으며, 1913년에는 최창근이 번역한 『자택독습 최신사진술』이 발행되어 학생들의 교재로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스스로도 사진술을 쉽게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사진교육의 시작은 1910년 YMCA 학관의 공예과에 설치된 사진과에서 비롯되었다. 사진 수용은 비록 일본에 비해 30년 정도 뒤쳐졌지만 사진교육기관 설치에 있어서는 일본보다 빨랐는데, 일본사진교육사에 있어서 최초의 교육기관으로 알려진 동경미술학교의 임시사진과가 1915년에 개설되었던 것에 비해 5년이나 앞선 것이었다. 물론 이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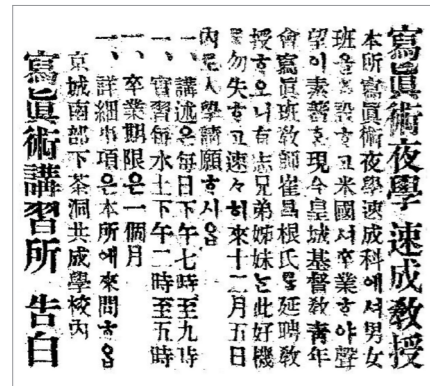
「자택독습 최신사진술」, 『대한매일신보』, 1913.7.8

6) 이덕희의 자료집에 소개된 하와이 이민자 명단에는 상기 최창근 이외에 1905년 5월 8일 시베리아(Siberia)호를 타고 하와이에 도착한 22세의 기혼남 최창근의 이름이 올라있다.

진과가 정규 고등교육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3개월 내지 6개월 과정의 속성과(직업과)로 설치된 것이었지만 근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수업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있다.

다. 공성학교 사진속성과와 한영서원 사진과

YMCA에 사진과가 개설된 해인 1910년에는 일반학교에서도 사진교육이 이루어졌다. 상기 최창근이 다동(茶洞)에 있던 공성학교(共成學校)의 사진술강습소에 초빙되어 매일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2시간씩 1개월 과정으로 사진 교습에 나선 것이다. 1910년 11월 공성학교 사진술강습소에서는 ‘사진술 야학 속성과’ 개설 광고를 내고 다음과 같이 남녀 학생들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본소 사진술야학 속성과에서 남녀반을 각설하고 미국서 졸업하여 성망(聲望)이 소저(素著)한 금반 황성기⁶⁾독교 청년회 사진반 교사 최창근씨를 연빙 교수하오니 유지 형제자매는 이 호기를 물실(勿失)하고 속속히 래(來) 12월 5일내로 입학 청원하십시오.

- 강술은 매일 하오 7시 지(至) 9시
- 실습 매 수토 하오 2시 지(至) 5시
- 졸업기한은 1개월
- 상세사항은 본소에 래문(來問)하음

경성남부 하 다동 공성학교 내 사진술강습소 고백⁷⁾

공성학교는 1908년 ‘다방골(다동) 사는 실업가 제씨가 의론하고 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설립되었는데, 이 곳 교장은 유신혁(劉臣赫)이었으며 교감은 월남 이상재(李商在)였다.⁸⁾ 이상재는 앞서 언급했듯이 1904년 YMCA에 가입한 독립협회 지도자 중 한사람으로서 1905년 교육부 위원장을 거쳐 1908년 종교부 총무에 취임한 YMCA의 핵심 간부였다. 이러한 월남이 공성학교 교감을 겸직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학교에 사진술강습소가 설치된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하게 한다. 교육부장으로서는 YMCA 학관 내의 사진 시설과 사진과목 설치 그리고 사진과 개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월남이 당시 YMCA 사진과 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최창근을 자신이 교감으로 있던 공성학교 내의 사진술강습소로 불러 사진 교육을 담당케 했던 것 같다. 비록 사립 초등교육기관이기는 했지만 이 학교에 사진술강습소가 설치된 것은 종교단체가 아닌 일반교육기관에서 사진술을 가르친 첫 번째 사례였다는 점에서 사진교육사적 의미는 크다. 하지만 1개월 과정의 야학 속성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정규교육과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진정한 의미의 정규 사진교육은 1906년 개성에 설립된 한영서원(韓英書院)⁹⁾에서 찾아볼 수 있다. 좌옹 윤치호가 초대 교장으로 있었던 한영서원은 졸업 후 자기 스스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직

7) 「사진술야학 속성교수」, 『대한매일신보』, 1910.11.29

8) 「공성학교」, 『공립신보』, 1908.5.27

업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 설립된 실업학교였다. 이런 취지하에 1911년에 책임자 딜(C. H. Deal)과 보조 히긴스(Higgins)의 지도로 염직과, 목공과, 사진과 등이 설치되었다. 수업연한 및 교과과정은 학과마다 달랐는데, 사진과의 경우 5개월 과정으로 성경, 화학, 사진술, 실습을 교육받았다. 이 학교는 남감리회의 선교 및 교육활동을 위해 설립되었기 때문에 YMCA 사진과와 비슷한 교과목을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한영서원의 후신이 현재의 송도학원인데, 1989년에 발행된 『송도학원 80년사』에서도 한영서원의 사진과 교사가 누구인지 또 배출된 졸업생이 누구이며 그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연구는 미완의 과제로 남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한영서원의 초대 교장인 윤치호 역시 공성학교의 이상재와 마찬가지로 YMCA의 창립 초기에 가입한 민족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재와 윤치호 둘 다 기독교인으로서 교육사업에 깊이 관여했으며, 각자 공성학교와 한영서원을 운영하면서 사진교육과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이상재가 제2대 YMCA 총무 시절인 1914년에 조선기독교청년회연합회를 조직하기 위해 그 모임 장소를 개성의 한영서원을 택한 것도 단순한 인연은 아닌 것 같다. 특히 윤치호는 한국 사진사(寫眞史)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알린 인물이기도 한 데, 1884년 사진수용의 선각자 중 한 사람인 지운영의 고종 어진 촬영에 대한 기록을 자신의 일기에서 밝혔던 것이다. 그런 좌옹이 남감리회의 첫 조선인 교인으로서 한영서원의 교장이 되었고 마침 그곳에 사진과가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아이러니를 엿본다.

2. 1920년대의 사진교육과 여성사진교육기관의 등장

가. 각종 사진학원의 개설

1920년 들어서 사진이 점차 대중화되고 이에 따라 사진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진사에 대한 요구가 많아졌다. 1910년대 초반에 설립된 사진교육기관들 중에서 YMCA 사진과만 남고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진 상황에서, 사진사를 수급하는데 있어 YMCA 사진과나 사진관의 도제교육만으로는 부족했다. 더욱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YMCA 사진과를 대체할만한 새로운 교육기관이 필요했다. 이러한 요구는 조선 전 지역에 걸쳐 일어났으며, 이에 따라 크고 작은 규모의 사진학원들이 각 지역마다 등장하기 시작했다. 먼저 경성에는 남영동에 위치한 일선(日鮮)사진기사양성소를 비롯해서 총무로 1가의 경성사진전문학원, 와룡동의 조선기공전수학원, 낙원동의 동광사진학원, 정동의 경성사진학원 등 많은 사진학원들이 생겨났다. 또한 지방에도 일찍부터 실습원, 강습회, 전습학원 등의 이름을 딴 사진학원들이 개설되었는데, 이북지역에는 원산 본정의 조선사진전문학원 외에 평양 이문리에 위치한 조선사진전문실습원과 경의선 홍수역 앞에 위치한 동야사진술강습회 등이 있었으며, 남부지역에는 남성사진전습학원이 대전에 개설되었다. 교육기간은 학원마다 달랐는데, 대개 1개월, 45일, 2개월, 3개월 등의 속성과정으로 운영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속성과 외에 특별과를 둔 곳도 있었

9) 한영서원은 1906년 10월 3일 미국 남감리회 선교부의 후원을 얻어 민족 자주 독립 정신과 기독교정신인 경천애인과 봉사를 건학 정신으로 삼아 개성 송악산 기슭 산지현에 설립되었으며, 초대 원장(교장)으로 윤치호가 취임하였다. 1917년 송도고등보통학교로 개칭했으며, 1908년 신축 당시 세워진 현대식 석조 2층 건물의 캠퍼스는 현재 김일성정치대학으로 이용되고 있다. 해방 후 인천으로 옮겨왔으며 현 송도학원의 전신이다.

(좌) 「동광사진학원학생모집」, 『동아일보』, 1929.3.20
(우) 「조선사진전문학원」, 『조선일보』, 1923.11.22

普通科(六個月) 五十名 速成科(三個月) 五十名
東光寫真學院學生募集
出願期日(四月十日限)
詳細來函(地方支店轉寄) 京城府樂橋洞九七九

寫真術全書 特價一圓八十錢 申込金五十錢
朝鮮文字易講解●初學者及長師●理想的寫真術全書●內容豐富
寫真原理及用法●攝影●現像●暗房●印像●修整●放大●裝裱●寫真
技術及寫真用藥●出像攝影之得策●實際上必須之條件
至其末頁●一覽圖解●初學者及長師皆宜之保證書
元山府本町
朝鮮寫真專門學院
發行所 京城府一丁三三三番

으며 보통과와 속성과, 주학부와 야학부, 본과와 연구과 등 다양한 편제의 교육과정을 두기도 하였다. 또한 실지교육과 더불어 통신교육을 겸하는 곳도 있어 사진교육의 기회는 전국적으로 확장되었다. 이들 사진학원들은 그 숫자가 점점증하고 학원 간의 경쟁이 심해지자 신문광고를 통해 속성으로 사진사가 될 수 있다는 보증과 함께 졸업 후 취업을 알선하는 조건 등을 내걸어 수강생들을 모집했다.

앞서 언급한 사진학원들 중 1929년에 설치된 동광사진학원과 남성사진전습학원은 다른 곳에 비해 신문에 자주 오르내렸으며, 1930년대까지 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학원이 그 운영자의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것에 비해, 이 두 학원은 설립자가 누구인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언론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교육기관이었던 것 같다. 먼저 동광사진학원은 1929년 3월 19일에서 21일 사이에 『중외일보』와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개설 기사와 광고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동광사진학원을 신설한 홍인택(洪仁澤)의 자세한 이력은 알 수 없지만, ‘사진술을 전문으로 교수하는 기관이 희소함을 유감으로 생각’하여 유지 2-3인과 함께 발기해서 본 학원을 창립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점이 있다. 또한 학원이 개설된 장소가 조선인 사진관이 많았던 낙원동이었다는 점에서 경성 사진사협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나 싶다. 교육과정은 보통과(6개월)와 속성과(3개월)로 나누어졌으며, 각각 50명씩 100명을 모집할 정도로 그 규모가 상당했다. 하지만 1930년 3월 13일자 『조선일보』에 게재된 학생모집 광고를 보면 장소도 중학동으로 옮기고 인원도 30명으로 줄여 모집했는데, 운영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 신문광고 이후로 동광사진학원의 이름은 지면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대전에 위치했던 남성사진전습학원은 1920년대 조선 남부지역에서 거의 유일한 사진교육기관이었다. 원장 진두성(陳斗星)은 이미 대구 사진계에서 명성을 쌓은 인물로 1920년대 후반 대전으로 옮겨와 춘일정 2정목(현 은행동)에 남성당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1933년 이 사진관에서 충청, 전라, 경상, 남해(南鮮) 6도를 망라한 남조선사진협회의 설립을 주도했을 정도로 사진제도 형성에 있어서 중심역할을 하였다. 남성사진전습학원 또한 이 사진관 안에 설치되었는데, 진두성은 이 학원의 설립 목적을 대전지방의 ‘무직청년들을 다소라도 구제하기 위하여’라고 밝히고 있다. 운영의 형편상 1군(郡)에 1인에 한하여 60명을 모집정원으로 하여 사진술을 전습시켰으며, 연 2회의 실습생을 양성하였다. 교육과정은 본과와 속성과 그리고 연구과로 나누어졌으며, 보통학교 졸업정도의 입학자격을 요구했다. 이 학원은 매년 학기 초 신문지상에 공지되었던 ‘각 학교 입학 수지(須知, 반드시 알아야 할 것)’를 통해 모집요강을 계속 내보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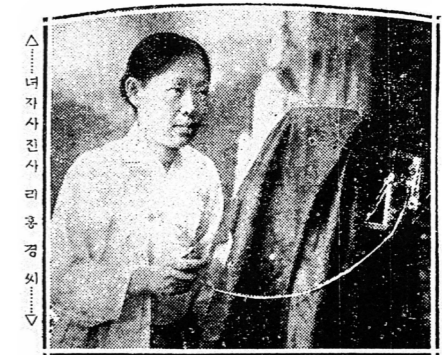
志願期日三月末日外
地方照會二錢切手添付
大田府本町三丁目
寫真專習生募集
南泉寫真專習學院

「남성사진전습학원」, 『동아일보』, 1930.2.15

1936년까지 신문 기사와 광고를 통해 그 존재를 알렸다. 이처럼 남성사진전습학원은 YMCA 사진과의 후신으로 1934년 설립된 경성사진학강습원과 더불어 1930년대 조선 이남지역의 사진교육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사진교육기관이었다.

나. 여성사진교육기관의 등장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성에게도 많은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면서 그들의 직업도 다양해졌다. 특히 그동안 남성의 전유물로만 알려졌던 사진사(寫真師)도 여성에게 유망한 직종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를 반영하듯 1926년 5월 18일 『조선일보』에서는 ‘조선여성이 가진 여러 직업’이란 연재 기사의 여덟 번째로 ‘사진사’를 소개하였다. 이 기사는 ‘전문적 기술과 명민한 두뇌 그리고 수정을 위해 꼼꼼한 성품이 요구되는 사진사는 어느 점에서나 남자보다



이흥경의 모습, 1926

도 여자에게 적당한 직업이라 할 수 있고, 여전히 내외가 심한 구가정의 여성들을 활영하기 위해서도 여자사진사가 요구된다’며 조선여성의 직업으로서 사진사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 분야에서 선구적인 활동을 하고 있던 ‘여자사진사 이흥경’과의 대담내용을 기사로 실었는데,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여자사진사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나아가 이 기사는 여성사진교육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다. ‘근화여학교에 여자사진부가 설치되었다’는 것과 ‘이흥경이 그곳에서 사진부 생도들을 가르쳤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사진학교가 존재하지 않았던 조선에서 YMCA 사진과는 당시 유일한 사진교육기관이었지만, 1926년에 이르러서는 그 명맥만을 유지한 채 소수의 남학생들만이 교육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성들은 YMCA 사진과 외에 개인사진관에서 견습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여성들에게는 사진교육의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이때 근화여학교에 여자사진부가 설치되어 사진사가 되기 위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여성사진교육사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이 근화여학교에 여자사진부가 설치되었다는 기록은 위의 기사가 보도되기 한 달 전인 1926년 4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 먼저 찾아볼 수 있다. 『조선일보』는 4월 23일자 신문에서 조선 최초의 여자사진과 설치에 대해 보도하였으며, 4일 뒤인 4월 27일 『동아일보』에서도 관련 기사를 내보냈다. 근화여학교에 여자사진과가 설치된 것은 이 학교의 설립자인 여성운동가 김미리사(金美理士)가 연초에 밝힌 새해 희망과 포부에서 그 전조를 읽을 수 있다. 1926년 1월 3일자 『동아일보』에서 그녀는 “조선 여자에게는 지금 무엇보다도 직업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인해방이니 가정개량이니 하지마는 다 제 손으로 제 밥을 찾기 전에는 해결이 아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영구책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지금 조선여자로서는 그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나는 새해부터는 꼭 조선여

자에게 실업적 교육을 시킬 기관을 조선여자교육회 안에 두고 싶습니다.”라며 실업교육기관의 설치 의사를 밝혔고, 그 결과가 근화여학교 내의 사진과 설치로 나타난 것이다.

이 사진과는 보통학교 6학년 졸업 정도의 학력이면 입학이 가능했다. 그러나 학제와 수업연한 그리고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앞의 두 신문이 서로 다르게 적고 있어 약간의 혼선이 있다. 『조선일보』는 여자 사진과의 교과과정이 4개월 과정의 본과와 2개월 과정의 연구과로 이루어졌고 모집인원은 20명이라고 했으나, 『동아일보』는 3개월 과정의 ‘보통과’와 이 과정이 끝난 후 후속과정으로서 ‘연구과’를 두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모집인원도 50명으로 보도했다. 이처럼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본 사진과의 교육기간은 3개월 내지 4개월(연구과정까지 하면 최대 6개월) 과정인 속성 과정이었다. 즉 근화여학교의 정규과정인 6년제의 보통과와 4년제의 고등과 외에 설치된 특별과의 하나였던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특별과에는 사진과 외에 음악과와 어학과 그리고 기예과가 있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진과는 오래지 않아 1927년 2월 이전에 이미 폐과되었고, 1928년 4월 신학기부터는 음악과 외의 모든 특별과가 사라졌다.¹⁰⁾

이 곳 출신의 여성사진사에 대한 기록은 현재 남아있지 않지만, 초대 사진교사였던 이홍경(李弘敬)에 대해서는 여러 신문기사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경성에 부인사진관 개업은 이홍경 여사가 처음’¹¹⁾이라며 1921년에 이미 한 신문매체에 등장했던 그녀는 남편 채상묵과 함께 경성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위의 『조선일보』 기사가 말해주듯이 당시 ‘경성의 일류사진기술자’로 활동하였다. 근화여학교가 이홍경을 여자사진과의 초대교사로 초빙한 것은 뛰어난 실력과 다채로운 이력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가 여성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던 것 같다. 즉 그녀는 1920년대 대표적 직업여성으로서 남녀평등과 여권신장의 표상이었기 때문에, 사진과의 설치 목적에 부합한 최적의 인물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이홍경은 1921년에 조선 최초로 부인사진관을 개설한 사진사이자 1926년에 처음 개설된 여자사진과의 초대 사진교육자로서 활동한 선구적인 인물이었다.

3. 1930년대 사진교육기관과 경성사진학강습원

가. 신설되는 사진학원들

1930년대는 새로운 사진학원들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학원들과 서로 경쟁하던 시대였다. 먼저 경성에는 국제사진학원이 1930년경 광화문동에 있던 광화문빌딩에 들어섰으며, 뒤이어 경성사진학원¹²⁾이 서대문 정류장 앞쪽에 개설되었다. 그리고 중학동의 조선사진전문학원, 인사동의 경성고등사진학원, 종로 6정목의 경성고등사진전수원 등이 1930년대 전반기에 신설되었다. 또한 각 지역에도 사진사 양성을 목적으로 크고 작은 학원들이 생겼는데, 부산 좌천정의 영생원사진학원을 비롯하여 신의주 영정의 압강사진실습학원, 평북 영변 성내의 평안사진학원, 대구 동성정의 중앙사진학원, 대전 본정의 대전사진학원 등 사진학원의 설립은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사진학원들은 저마다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면 사진기사가 되라’, ‘취미와 실용을 겸비할 미술적 직

10) 「각 여학교 입학절차」, 『조선일보』, 1927.2.8(근화여학교의 입학절차를 보면 보통과, 고등과, 음악과만을 모집하였다.); 「근화여학원 대확장」, 『동아일보』, 1928.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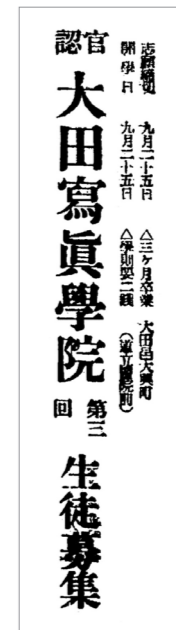
11) 「부인사진관, 부인사진사로는 이홍경씨 가 처음」, 『조선일보』, 1921.5.22

업을 희망하는 이는 사진기사가 되라’, ‘실패 없고 이익 많이 내려면 사진기사가 되라’며 전국의 무직 청년들에게 사진사 되기를 권하는 광고 문안을 내걸었다. 1929년 세계경제공황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실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사진학원들은 학력과 연령을 불문하고 실직 상태의 조선인 남녀들을 대상으로 경쟁적으로 수강생 모집에 나섰던 것이다. 이처럼 1930년대 전반기는 사진학원이 새로운 교육사업으로 등장했던 시기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진교육사업은 그다지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 사진교육기관으로서의 가장 유서가 깊은 YMCA 사진과마저 경비문제로 1933년 말에 폐과되었기 때문이다.

이 학원들 중 규모가 큰 곳은 국제사진학원과 대전사진학원이었다. 1930년 9월 6일 『동아일보』에 보결생 모집 광고를 내면서 그 존재를 알린 국제사진학원은 초기에는 ‘국제사진부사진사양성소’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다가 1931년 7월 경부터 전기(前記) 이름을 사용하였다. 교과과정으로 6개월 과정의 본과와 3개월 과정의 실과를 두었으며, 1931년 6월과 7월에는 연속해서 제1회·제2회 하기사진강습회를 열었다. 1932년 3월에는 교사를 신축하여 광화문동에서 청진동 1번지로 이전하였으며, 1년 과정의 본과를 신설하고 실과도 갑·을·중 각반으로 나누어 학생을 모집하였다. 그해 4월 5일 새로 바뀐 교육과정으로 개학식을 거행한 국제사진학원은 1930년대 초반 경성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원 중의 하나였다. 광화문빌딩에 세 들어 있던 학원이 교사를 신축하고 1년 과정의 교과 과정을 신설했다는 것은 그곳의 규모가 상당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렇게 확대일로에 있던 국제사진학원의 모습은 1932년 4월 이후로 신문지상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으며, 운영주체와 졸업생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어 아쉬움을 더한다.

경성의 국제사진학원과 달리 대전사진학원은, 1929년 설립되어 1936년까지 존속했던 남성사진전습학원과 함께, 1930년대 중반 조선 이남지역의 사진교육을 이끌었다. 1935년에 신문광고를 내면서 그 모습을 처음 드러낸 이 학원은 그해 9월 본정에서 대흥정으로 주소를 옮겼으며, 3개월 과정의 속성과만 운영하였다. 신문기사를 통해 상세하게 소개되었던 남성사진전습학원과는 달리 광고를 통해서만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지만, 1938년까지 대전의 관인(官認) 사진학원으로 꾸준히 존속하였다.

한편 1936년에는 1929년 사진술강습소를 교내에 설치해 사진교육을 실시했던 대정의숙(大正義塾)처럼, 평양의 약송보통학교(若松普通學校)에서 졸업을 앞 둔 상급생들을 대상으로 사진과를 설치하여 사진술을 교습하기도 했다. 정식 교육과정은 아니었지만 교실 한 편에 암실까지 차리고 과정을 마치면 사진업에 종사할 정도로 강습을 시켰다고 한다.¹³⁾ 이곳에서의 사진교육 활동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1910년대의 공성학교, 1920년대의 대정의숙과 함께 우리나라 근대사진교육사에 새로 편입시켜야 할 교육기관임에는 틀림없다.



「대전사진학원」, 『동아일보』, 1935.9.11

12) 이 학원은 1929년경에 정동에 개설되어 1930년에 조선사진전문학원으로 개칭한 경성사진학원과 이름은 같으나 별개의 학원이다.

나. 경성사진학강습원과 경성사진학강습소

경성사진학강습원은 YMCA 사진과의 후신으로 1930년대 대표적인 사진교육기관이었다. 그러나 이 학원과 관련된 내용 중 여러 부분에서 혼선을 보여 왔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 경성사진사협회의 창립회원이면서 일제강점기 내내 사진교육에 힘써왔던 박필호의 기억에만 근거해서 설명해왔기 때문이었다. 그가 쓴 글과 대담기사 등을 보면 종전의 ‘YMCA 사진과가 1927년 경성사진사협회를 중심으로 재건되어 1936년 일장기말소사건을 계기로 폐교될 때까지 같은 이름으로 존속했다’거나, ‘박필호가 자신의 명의로 인가를 받아 경성사진학강습원을 개원한 연도가 1938년이었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데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 이 학원의 학제와 교과과정 그리고 강사 및 교육사업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되었기 때문에, 사진사적으로 혼선을 빚어왔던 부분을 중심으로 사실 규명을 하고자 한다.

먼저 YMCA 사진과는 1933년 말에 폐교되어 1934년 이후로 더 이상 그 이름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그동안 중앙기독교청년회학교 명의로 사진생도를 모집해 온 신문광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1934년 3월 신학기를 맞아 낸 광고에서는 사진과만 누락되어 있다. 이처럼 YMCA 사진과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대신 조선인 사진단체인 경성사진사협회와 경성인상사진연구회 그리고 경성사구회 등 세 단체가 연합하여 YMCA 사진과를 인계 경영하기로 하고 경성사진학강습원이라는 새로운 교육기관을 창설하였다. 이는 운영주체가 한 종교단체에서 민간 사진단체로 바뀐 전혀 다른 교육기관의 탄생을 의미한다. 이 학원은 1933년 12월 29일 학무당국에 의해 인가되었으며 개강은 1934년 1월 16일로 고시되었다. 그런데 기존의 설명과는 달리 처음부터 옛 YMCA 사진과의 시설과 장소를 그대로 인계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¹⁴⁾ 별도의 교육장소를 마련하여 출발하였다. 즉 임시사무실을 수은동 68번지에 두고 교사를 무교정 4번지에 마련하여 개교했던 것이다. 그러다 1934년 2월경 관훈동 7번지로 교사를 옮겼으며, 5월 12일 이곳에서 속성과 제1회 졸업식을 거행하기에 이른다.¹⁵⁾

경성사진학강습원은 그동안 관훈동 7번지에 있던 바, 업무를 확장하기 위하여 수은동 연우사진관 옆으로 박필호씨의 호의로 기지 40평을 얻어 명춘(明春)에 교사신축에 착수할 터인데, 이 동안 종로중앙기독교청년회관 4층으로 당분간 이전하게 되었다한다.¹⁶⁾

경성사진학강습원의 교사는 9월 1일 신학기 개강을 맞아 모집 공고를 냈을 때에도 관훈동에 위치했었다. 그러나 업무 확장을 위해 수은동으로 교사를 신축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12월경 종전의 YMCA 사진과가 있었던 종로 2정목 9번지로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 하지만 경제적 여건 때문에 교사 신축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1937년 폐교할 때까지 계속하여 YMCA 건물의 교실 일부를 임대해 교사로 사용하였다. 경성사진학강습원이 폐교에 이르게 된 것은 원장으로 있던 신락균이 『동아일보』 사진부장으로 일장기말소사건 연루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 학원의 폐교 시점을 일장

13) '平壤若松普校에 寫真科', 『동아일보』, 1936.6.21

14) 최인진은 '경성사진학강습원은 모든 교육은 옛 사진과에서 사용하던 청년회 시설을 이용'했다고 적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기독교청년회의 사진교육 운동 1904-1937』, 『AURA』, 2005. 25p.) 『동아일보』는 경성사진학강습원 창설과 관련된 1933년 12월 31일자 기사에서 '임시사무소는 수은동 68번지에 두고 학교는 무교정 4번지에 둘 터'라고 적고 있다.

15) 『京城寫真學講習院』, 『동아일보』, 1934.2.1. 「사진학강습원 속성과 졸업식」, 『조선중앙일보』, 1934.5.12. 그런데 1934년 7월 7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속성과 제2회 졸업식을 무교동 4번지에 있는 경성사진학강습원에서 거행되었다'고 적고 있어, 학원 위치를 종전 위치로 착오하여 잘못된 것인지는 아니나 그곳과 관훈동 7번지 2곳에 교사가 있었는지 혼선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 기사 이후에서는 관훈동으로만 그 위치를 적고 있다.

16) 『京城寫真學講習院 青年會館으로 移轉』, 『동아일보』, 1934.12.2

기말소사건이 일어난 1936년 8월 무렵으로 보고 있으나, '조선기독교청년회관 속의 일부 교실을 빌려 신락균씨가 경영하던 경성사진학강습원은 사정에 의하여 금후 폐지하기로 되었다'는 『조선일보』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37년 2월 말까지 명목상 존속했었다.¹⁷⁾

그러나 폐교된 지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경성사진학강습원은 복활(復活)되었다. 박필호와 김광배를 비롯한 사진계 인사들의 노력으로 5월 28일 새로 인가를 받아 사진에 대한 조선인들의 교육열을 이어나갔다. 전 원장이었던 신락균이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없었기에 정주원(鄭柱源)을 새로운 전임강사로 하고 교사는 종전처럼 YMCA 건물 안에 두었다. 그런데 2달 뒤 경성사진학강습원이 신문에 낸 학생 모집광고를 보면, '공인 경성사진학강습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여러 차례 동일한 광고가 게재된 것을 보면 인가를 다시 받을 때 종전의 이름대신 경성사진학강습소라고 개명하여 신청했던 것은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1937년 5월 이후 부활된 경성사진학강습원의 정식명칭은 경성사진학강습소로 불러야 마땅하다. 1938년 3월에도 『매일신보』에 경성사진학강습소 명의로 3개월 속성의 '사진연구생 모집' 광고를 낸 것으로 보아 이 명칭으로 일제 말기까지 존속했던 것 같다. 그 이름이야 어떻든지 간에 1910년 개설된 YMCA 사진과를 전신으로 한 경성사진학강습원 또는 경성사진학강습소는 중간 중간 폐교의 위기가 있었지만 2-3개월 정도의 공백기만 보인 채 일제강점기 내내 우리나라 근대사진교육을 담당해 온 대표적인 교육기관이었다.

4. 일본의 사진교육기관과 조선 유학생들

1930년대 중반에 이르면 신문지상에서 조선 내 사진학원 관련 기사나 광고가 크게 줄어들어는 반면, 일본 내 사진학교의 광고가 자주 눈에 띈다. 일본의 유수 대학들이 조선에 거주하는 조선인과 일본인 유학생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조선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단체로 광고를 싣는 경우가 많았으며, 여기에 사진학교도 포함된 것이다. 이러한 사진학교 입학 광고를 보고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자료가 없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신락균과 현일영의 경우처럼 일본유학에서 돌아와서 국내 사진계의 지도자로서 활동한 사진유학생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그러면 신락균이나 현일영 등을 비롯한 조선의 사진유학생들이 입학한 일본의 사진교육기관은 어떤 곳이 있었을까? 당시 신문 광고를 통해서도 그 일면을 확인할 수 있지만 1931년도 『일본사진연감』에 실린 아키야마(秋山轍輔)의 글을 통해 사진교육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는 「일본



(좌)「경성사진학강습원 학생모집」, 『동아일보』, 1936. 2. 8
(우)「중앙기독교 청년회학생모집」, 『동아일보』, 1936. 3. 9

17) 「사진학강습원 폐지」, 『조선일보』, 1937.2.25



「동경사진전문학교, 동경사진학교 광고」,
『동아일보』, 1936.2.9

에서의 사진교육의 현상」이란 에세이에서 사진교육에 대한 정의와 과거 대학에 설치된 사진 강좌와 강사들을 소개하면서 일본의 대표적인 사진교육기관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당시 일본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동경사진사협회 부속 사진학원, 동경사진학원, 오사카사진전수학원 등 다양한 사진학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사진학원 외에 정식교육기관으로서 동경고등공예학교, 동경사진전문학교, 오리엔탈사진학교 등 3개의 사진학교가 설치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에 사진학교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 조선의 유학생들은 이 학교들을 중심으로 입학하였는데, 직업기술의 습득이라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 예술적 실험과 학리적 연구의 대상으로 사진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일본으로의 사진유학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가. 동경사진전문학교의 조선유학생

사진관 중심의 도제식 교육을 받기 위해 일본으로 도향한 초기의 사진유학과는 달리, 근대적 사진교육을 받기 위해 사진유학을 떠난 첫 번째 사진가는 누구였을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평양 출신 사진가인 서순삼의 기록이 가장 앞선다. 그는 1922년 겨울 일본으로 건너가 코니시로쿠사진전문학교에 입학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그가 입학한 학교의 정확한 명칭은 1923년 코니시로쿠(小西六) 사진공업주식회사에서 설립한 '코니시사진전문학교(小西寫真專門學校)'로 현 동경공예대학의 전신이다. 3년 과정의 본과 외에 선과와 별과 등의 교육과정을 설치한 이 학교는 1923년 3월 문부성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그해 4월 첫 입학생을 받았다. 서순삼도 이때 입학했을 것으로 보인다. 코니시사진전문학교는 1926년에 교명을 동경사진전문학교로 개칭하고 17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서순삼이 이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은 그의 일본 유학 당시 이 학교가 유일한 사진교육기관이었기 때문이다. 1923년 당시는 일본 사진교육의 선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동경미술학교의 사진과(1915년



동경사진전문학교 전경

설치, 동경고등공예학교¹⁸⁾의 전신)가 폐과되어 사라졌던 해이며, 오리엔탈사진학교의 설립은 6년 뒤에나 가능했다. 하지만 동경사진전문학교 첫 입학생으로서 제1회 졸업생의 영예를 얻을 수 있었던 서순삼의 사진유학은 1923년 9월 1일 동경을 강타한 관동대지진으로 인해 도중에 좌절되고 만다. 지진으로 인한 흉흉한 민심을 재일조선인들에게 돌리려는 일본정부의 술책으로 조선인들이 학살되는 상황에서 그는 학업을 잊지 못하고 조선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이때 서순삼뿐만 아니라 김소월과 김동환과 같은 수많은 문인들도 유학생생활을 접고 서둘러 귀국길에 올랐다.

서순삼의 뒤를 이어 일본의 사진학교에 입학한 조선 유학생은 신락균이었다. 이미 1922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던 그는 동경정칙학교와 동양대학에서 영어와 문화학을 전공하다가, 1924년 전공을 바꿔 서순삼이 다녔던 코니시사진전문학교에 들어갔다. 그는 여기서 3년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1927년 졸업하기에 이른다. 코니시사진전문학교의 교명이 이미 1926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는 동경사진전문학교의 졸업생이 되었다. 신락균의 동경사진전문학교의 졸업 사실은 1927년 발행된 『일본사진연감』에서 확인할 수 있다.¹⁹⁾ 이 연감에는 본과생 25명 선과생 6명 별과생 1명 등 총 32명의 '동경사진전문학교 제2회 졸업생'이 소개되었으며, 신락균은 선과 졸업생 명단 안에 기재되었다. 1936년에 간행된 『동경사진전문학교일람』(이후 『일람』)을 보면 좀 더 정확한 학제를 알 수 있다. 이 학교는 학칙과 최종 학력에 따라 수업연한 3년인 본과생 외에 약간 명의 연구생 및 선과생을 선발할 수 있었다. 설립 초기에는 본과, 선과, 별과 등의 교육과정을 두었으나, 별과생은 1925년부터 모집하지 않았으며 선과생은 1930년까지만 모집하였다.²⁰⁾ 그런데 본과생의 경우 졸업자에게 졸업증서를 수여하고 '동경사진학사'로 칭했던 반면 선과생의 경우는 성적우수자에 한해 수업증서를 수여하고 졸업생이 아닌 '수업생'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본과와는 달리 선과의 경우 선발과정도 달랐으며 수업 연한도 2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2년 과정과 3년 과정이 있었다). 결국 학칙만 보면 본과생 이외의 졸업자들은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없는 엄밀한 의미의 정규졸업생이 아니었다.

18) 동경미술학교의 임시사진과가 동경고등공예학교의 인쇄공예과로 이관된 것은 1926년 5월이었다.

19) 「東京寫真專門學校 第2回 卒業生」, 『日本寫真年鑑』(大正15年-昭和2年), 朝日新聞社, 1927, 18p.

20) 秋山徹輔, 「日本における寫真教育の現狀」, 『日本寫真年鑑』(昭和6年), 朝日新聞社, 1932, 11p.

그래서 『일람』에 수록된 연도별 졸업자 명단을 보면 신락균은 ‘졸업생’으로서가 아니라 ‘선과 3년 수업자’로 분류되어 있다.²¹⁾ ‘수업자’는 정해진 수업을 이수한 수료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업은 본과생들과 동등하게 3년간(2년 과정도 설치되어 있었다)이었지만, 사진학사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는 없었다. 결국 선과생 졸업자는 본과생 졸업생들처럼 사진학교 교·강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으며 사진기술을 필요로 하는 정부 기관이나 연구소에 취업하는 데 제한을 받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선과 3년 수업자인 신락균이 사진학사 학위를 실제로 받았는지는 의문이다. 그가 제2회 졸업생 명단 선과 졸업생으로 실려 있고, 졸업앨범에 그의 사진(선과졸업생 단체사진과 함께)이 수록되었다는 것만으로 그가 사진학사를 수여받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아직까지 확인할 수 없다. 신락균은 졸업 후 조선으로 건너와 YMCA 사진과 교사로 부임하게 되는데, 그가 이곳에 취업할 수 있었던 것은 사진학사의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조선에 사진전문학교가 없었던 사정에 기인한다. 즉 비록 사진학사를 받지 못했지만 그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았고 또한 당시 유일한 사진 유학생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조선인으로서 본과를 졸업한 학생으로는 1931년 제6회 졸업생이었던 김성환(金成煥)이 확인되고 있으며, 신성학교 출신의 이성현(李成賢)이 1936년 당시 본과 1학년생으로 재학하고 있었다. 이들 외에 조선에서 건너간 유학생들 중에는 일본인들도 여러 있었다. 하지만 신락균 이외의 유학생들에 대한 자료는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어 그들이 조선으로 돌아와 사진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는 없다. 반면 졸업자 명단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1930년대 초반 동경사진전문학교를 졸업한 박송우라는 인물이 신문에 소개되기도 했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사진계의 명인’으로 알려진 그는 20세였던 1928년에 경성의 YMCA사진과를 졸업하고 곧이어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사진전문학교를 졸업했다고 전한다. 신락균과 마찬가지로 사진교육에 뜻을 품고 ‘학식과 기술을 널리 전수할 목적으로’ 청진 부내에 사진학원을 개설하는 한편 부속 사진관까지 두어 이북지역의 사진계에 큰 공헌을 했다고 한다.²²⁾ 신락균이 유학에서 돌아와 YMCA 사진과 교수가 된 나이가 28세였는데 박송우 역시 당시 나이가 28세였다. 젊은 나이였지만 청진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으며, 『조선일보』의 ‘청진 소개관’에 사진계 대표로 소개될 정도였다. 그가 동경사진전문학교로 유학을 떠난 것은 YMCA 사진과 재학 당시 담당교사로 있었던 신락균의 영향이 컸던 것 같다. 특히 청진에서 사진학원을 설립해 후학 양성에 힘쓴 것은 보면 신락균을 모델로 삼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일람』의 졸업자 명단에서 그의 이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정말 졸업을 했는지 아니면 도중에 그만두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나. 오리엔탈사진학교의 조선유학생

조선인이 가장 많이 유학한 일본의 사진학교는 1929년 설립된 오리엔탈사진학교였다. 이 학교는 당시 감광재료 제조회사로서 일본의 사진업계를 선도하던 오리엔탈사진공업회사가 코니시로쿠사공업회사의 동경사진전문학교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었으며, 궁극적으로 사진계의 발전과 자사 제품의

21) 『東京寫眞專門學校一覽』, 東京寫眞專門學校, 1936. 67p.

22) 『사진계의 1인 박송우 씨』, 『조선일보』, 1936.12.18

인지도 향상을 목적으로 개설하였다. 나아가 사진화학이나 예술학 관련 교과목을 두어 사진가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기관으로서 기능하였다. 그러나 태평양전쟁 중 공습을 받아 오리엔탈사진공업의 사옥과 공장도 함께 교사가 전소되었으며, 1944년 폐교되기에 이른다.

이 학교에 조선인들이 많이 입학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수업 연한이 3개월로 짧아 유학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적었으며, 선진 사진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입학자격으로는 학교의 설립 목적이 영업사진가의 육성에 있었기 때문에 3년 이상 사진관에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사진관 업주의 증명서를 요구했지만,²³⁾ 이러한 자격요건은 형식적이었으며 누구나 지원만하면 입학할 수 있었다. 단기간에 직업사진사가 되려는 조선인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으며, 조선에서 이미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진사들도 최신 정보를 얻고 일본 사진업계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곳을 많이 찾았다. 경성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경성사진학강습원의 강사로도 활동했던 현일영을 비롯하여 김규혁, 임정식, 박천도, 유석영 등이 모두 이곳 출신들이다.

흥미로운 것은 오리엔탈사진학교에 사진가뿐만 아니라 화가들도 입학하여 사진술을 습득했다는 사실이다. 우리에게 알려진 대표적인 화가로 유영국과 주현(본명 이범성)이 있다. 이들은 모두 1937년에 창립된 일본의 전위미술단체인 자유미술가협회(이하 자유미협, 1940년 미술창작가협회로 개칭)의 회원이었다. 추상화가인 유영국은 1942년에 열린 《미술창작가협회전》에 남산에서 촬영한 불상사진들을 출품했으며, 주현은 자유미협 1, 2회전에 추상사진을 출품하였다. 유영국은 일본 유학 당시 생계수단을 위해 오리엔탈사진학교에 입학하여 6개월간 사진을 배웠으며, 불상사진을 출품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제 말기 전시체제 하에서 추상작업을 하는데 제약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²⁴⁾ 이와 달리 주현은 전위미술의 새로운 형태로 사진매체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그는 귀국 후에 동송동에 위치한 제대(帝大)갤러리에서 자유미협 회원으로 함께 활동했던 조우식과 함께 2인전을 열면서 회화 10점과 더불어 사진 30점을 전시하기도 했다.²⁵⁾ 이때 출품한 작품 중 주현의 사진이 『조선일보』에 소개되기도 했는데, 전형적인 ‘포토그램’이었다.

사진매체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은 달랐지만, 유영국과 주현이 사진작업을 하게 된 배경에는 전위미술을 선도했던 자유미협의 분위기가 한몫 했다. 자유미협전에는 회화뿐만 아니라 플라주와 오브제 그리고 사진 등을 포함하여 7종목을 출품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였고, 전위미술의 새로운 양식으로 사진작품을 출품하는 일본인 회원들이 많았다. 회원 중의 한 명인 에이 큐(瑛九)²⁶⁾는 1930년대 중후반 포토데생이라고 명명한 실험적인 포토그램 작업으로 일본 화단과 사진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인물이었다. 에이큐 또한 오리엔탈사진학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조선인 동문들과의 사진적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런 상황 속에서 유영국과 주현도 전위매체로서의 사진의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가 협회전의 사진출품으로 이어졌던 것이다.²⁷⁾

이처럼 오리엔탈사진학교의 조선유학생들은 에이 큐를 비롯한 동문 화가들의 사진 활동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오리엔탈사진공업회사에서 발행한 포토타임지를 통해 신흥사진과 전위사진과 같은 최신 사진사조를 접하면서 큰 자극을 받았던 것 같다. 이 학교로 유학을 떠난 영업사진사들 대다수는 조선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다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현해탄을 건넜지만, 이들 중에는 고국으로 돌아

23) 사토 히토시, 『신락균과 동경사진전문학교 그리고 1920년대 일본의 사진 조류』, 『AURA』No.13, 한국사진학회, 2005.35p.

24) 유영국/김철호 대담, 『해방이전 일본에 유학한 미술인들 3. 4』, 『한국기록보존소 자료집』 제3호, 삼성미술관 리움, 2004. 20p.

25) 『조우식, 주현 2인전』, 『조선일보』, 1939.7.15

와 중전의 사진관을 다시 경영하면서 예술사진 활동을 병행한 경우도 있었다. 1937년 철원읍에서 영화사진관(英和寫眞館)을 경영하던 조배현(趙培賢)은 오리엔탈사진학교를 마치고 돌아와 『조선일보』 철원지국의 후원으로 동 사진관에서 사진전을 개최한 바 있다.²⁸⁾ 어떤 내용의 전시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일본 유학이 사진매체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 점은 현 일영도 마찬가지였다. 그 역시 1936년 동교를 졸업한 후 돌아와 본격적인 사진창작 활동을 하면서 후학 양성에 힘썼는데, 일본 유학의 경험이 한몫했던 것이다. 함흥 출생의 사진사 주운학(朱雲鶴)도 오리엔탈사진학교 출신이었다. 예술적 재능을 타고난 그는 1937년 흥남에 본일사진관(本一寫眞館)을 개업하여 일반의 호평을 받았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1939년 일본으로 건너가 오리엔탈사진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다. 그는 재학 당시 수차례의 사진전람회에 입선하면서 완숙한 경지에 올랐으며, 귀향 후 다시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초상사진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여 흥남 사진계의 이채로 소개되기도 했다.²⁹⁾

다. 동경사진학교의 조선유학생

1930년대 동경사진전문학교, 오리엔탈사진학교와 함께 3대 사진학교 중의 하나였던 동경고등공예학교는 일본에서 사진전문교육의 선구 기관이라고 칭해지는 동경미술학교의 후신이다. 1915년 동경미술학교에 설치된 임시사진과가 1923년 폐과된 후 3년 뒤인 1926년 동경고등공예학교(1922년 창립)의 인쇄공예과에 이관·신설된 것이다. 그러나 이 학교에 유학한 조선인은 아직까지 알려진 바 없다. 문부성 직할 학교(관립)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사립이었던 다른 사진학교에 비해 조선인들의 입학에 제한이 있었던 것 같다.

지금까지 언급한 3곳의 사진학교 이외에 조선유학생들이 다수 입학한 또 다른 사진교육기관이 있었는데, 조선의 신문지상에 오랫동안 입학 광고를 실었던 동경사진학교가 그곳이다. 이 학교는 앞서 소개한 아카야마의 글에도 언급되지 않을 정도로 관련 자료를 찾기 어렵다. 신문광고에 적혀있는 이 학교의 연혁을 보면 설립연도가 1911년으로 되어있으며 가키누마 가쿠타로(柿沼覺太郎)을 교장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학교는 유용한 기술자의 양성을 목표로 설립됐다고 하는데, 학력과 연령을 묻지 않고 수시로 입학 허가를 했다는 점에서 학교라는 명칭을 쓰고는 있지만 학원일 가능성이 있다.³⁰⁾ 정식학교라면 동경미술학교보다 4년이나 앞서 설립된 이 학교가 일본사진교육사의 첫머리를 장식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에서도 YMCA 사진과가 YMCA 사진학교로 불리기도 했던 것처럼 이곳도 비정규 사진교육기관이 아니가 싶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로 하고, 우선 동경사진학교 출신의 조선유학생을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부산에서 동아사진관을 운영하다가 1935년 『동아일보』에 사진기자로 입사했던 강대석과 울산 사진연구회와 부산여광구락부와 같은 사진단체에서 활동했던 정인성이 동경사진학교 출신이다. 사진가로 활동하지는 않았지만 부산지역에서 무용평론가로 이름을 떨친 강이문도 이 학교 출신이다. 이들 이외에 얼마나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3개월(본과)의 짧은 교

26) 에이큐의 본명은 스키타 히데오(杉田秀夫, 1911-1960). 자유미술가협회의 창립 회원으로 화가이자 판화가 사진가로 활동하면서 전위적이고 추상적인 작품을 다수 발표했다. 특히 그는 만레이와 모홀리-나기가 각자의 프로세스를 레이오그램과 포토그램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1936년 자신의 독자적인 포토그램을 포토대생이라고 명명했으며, '빛의 대생'은 그의 평생의 테마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임응식도 이를 모방해 자신의 포토그램을 림스그램이라고 부른 바 있다.

27) 윤보 김기창이 사진재료상인 오사와(大澤)상회 3층 홀에서 조선 최초로 농촌의 풍경, 인물, 고적 등을 촬영한 사진 위에 회화적으로 착색한 사진들을 가지고 전시한 것이 1936년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도 193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 주류는 아니더라도 사진을 표현매체의 하나로 활용하는 화가들의 등장이 새로운 미술현상으로 나타난 것 같다.

28) 『철원에서 사진전람』, 『조선일보』, 1937.9.8

29) 『흥남 사진계의 이채. 본일사진관 주운학 씨』, 『조선일보』, 1939.12.24

30) 교육과정과 기간은 고등과 1년. 본과 3개월이었으며, 모집인원은 각각 100명씩 200명이었다.

육기간과 학력불문의 입학자격 그리고 취업알선까지 보장한다는 학교 홍보는 조선인들의 유학을 부추겼다. 한편 1929년 우리나라 최초로 '제1회 개인예술사진전람회'를 열었던 정해창의 이력을 보면 일본 유학 당시 '동경예술사진학교' 연구실에서 사진화학과 인화지제조법을 배웠다는 내용이 나온다.³¹⁾ 그러나 그의 유학 당시 전기(前記)의 학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동경사진전문학교일람』의 졸업자 명단에도 그의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동경사진학교'의 오기로 보인다.

동경사진학교 출신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곳에서 교강사로 활동했던 조선인 사진사들도 있었다. 1920년대 대전에서 남성사진전습학원을 운영했던 진두성이 그 주인공이다. 신문 기사에 의하면 그는 동경사진학교의 다년간 교수로 근무한 적이 있다. 어떤 과정을 통해 교수가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대구 사진계에서 명성을 쌓고 1920년대 후반에 대전으로 옮겨왔다는 정황으로 봐서 그는 이미 1920년대 중반 경에 동경사진학교에 근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진두성은 신라군에 버금가는 사진교육자로서 평가될만한 인물이다. 결국 그가 대전에서 남성사진관을 운영하면서 조선이남 지역의 유일한 사진교육기관이었던 남성사진전습학원을 개설하게 된 것도 동경사진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³²⁾ 진두성 이외에 또 한명의 동경사진학교 교수가 있었는데, 김도곤(金道坤)이란 인물이다. 그의 존재는 향양사진관(向陽寫眞館)의 신문광고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사진관의 주임교사인 김도곤의 이력을 '동경사진학교 강사'로 설명하고 있다.³³⁾ 더 이상의 기록이 없어 많은 부분이 공백으로 남지만 부산 초량 입구에 있었던 향양사진관에 주임교사를 두었다는 것은 그곳에서도 사진교육이 이루어졌음을 알려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유학생들은 졸업 후 영업사진사로 일하거나 예술사진가 및 보도사진가로 활동하였으며, 사진교육자의 길을 걷기도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술표현의 수단으로 사진술을 배운 화가들도 있었다. 자료의 한계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들 모두는 귀국 후 우리나라 전역에서 선진적인 사진기술을 대중들에게 보급하고 사진매체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 나갔다.

5. 나오면서

지금까지 해방 이전 우리나라 근대 사진교육의 흐름을 시대별로 살펴보았다. 1907년 실력양성을 통한 애국계몽운동 차원의 자주적인 사진교육이 교육서화관에서 시도되기도 했으나 고종의 퇴위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대신 기술훈련을 한국 청년층 선교에 활용하려는 선교사들에 의해 YMCA와 같은 기독교 단체와 한영서원 같은 기독교계 학교를 중심으로 사진교육이 주도되었다. 1911년의 제1차 조선교육령과 1915년의 개정사립학교규칙의 공포로 기술교육에 있어서 조선총독부가 세운 관립학교와 경쟁관계 있었던 기독교계 학교들이 극심한 탄압을 받게 되자, YMCA 사진과는 10년의 유예기간 동안 교사의 자격, 중학교 승격 문제 등 개정된 사립학교규칙이 요구한 내용을 시행하지 못해 결국 1926년 폐과 위기에 처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1920년대 들어와 수많은 사진학원들이 전국적으

31) 『한국사단의 개화자 1, 유재 정해창편』, 『사진예술』, 1966.8. 76p.

32) 『독자우대사진. 대전지국에서』, 『조선일보』, 1929.9.27

33) 향양사진관 광고기사, 『조선일보』, 1932.4.17



동경사진학교 광고기사.
『조선일보』, 1936.6.27

로 세워지고, 당시 일본에 세워진 사진교육기관으로 유학을 떠나는 등 사진교육의 수요는 더욱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YMCA 사진과도 신라군을 중심으로 한 조선인 사진단체에 의해 경성사진학강습원, 경성사진학강습소 등으로 명칭을 달리하면서 일제 말기까지 존속하였다. 이처럼 일제강점이라는 식민지적 상황 속에서도 사진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진교육기관과 사진교육자들이 등장했다. 여기서 주시해야 할 부분은 1880년대 초반 사진술 연구와 도입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던 김용원과 지운영을 비롯해 1900년대를 전후하여 사진관 개설을 위해 일본의 사진관에서 도제식 교육을 받고 돌아온 오경옥, 김규진, 김광배 등을 이어 1920-30년대 근대적 사진교육을 받기 위해 도입했던 서순삼, 신라군, 현일영, 진두성, 박승우 등의 조선유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근대사진교육사에 있어서 일본으로의 사진유학

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일제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조선의 사진교육은 일본의 그것을 모방할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당시의 사진교육사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근대사진교육사에 대한 사전 이해가 요구된다. 이때 비로소 한국 근대 사진교육의 전체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사료의 편중으로 YMCA 사진과와 그 후속 기관들의 명성에 가려 빛은 보지 못했지만, 새롭게 주목해야 할 사진교육기관들이 있다. 1911년 한영서원에 기술교육과정의 하나로 개설된 사진과와 1926년 개설된 조선 최초의 여성전문사진교육기관인 근화여학교의 여자사진부 그리고 1930년대 초반 경성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국제사진학원과 이남지역의 사진교육을 담당했던 대전 사진학원 등은 우리나라 사진교육사에 있어서 재평가 받아야 할 중요한 교육기관들이다. 그뿐만 아니라 아직도 각종 사진교육기관에 종사했던 많은 사진교육자들의 존재와 그들의 구체적인 활동경력이 가려진 채 남아있는데, 지속적인 사진자료의 발굴을 통해 한국 근대 사진교육사에 편입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우리나라 초기의 사진교육은 주로 실용학문의 차원에서 기술교육 위주로 이루어져 사진을 학문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전문학교에서 사진술을 가르친 일본의 경우와 달리 중등 기술교육기관으로 발전하지 못한 채 초보적인 기술교육의 단계에 머물고만 결과였다. 몇몇 엘리트 사진가들의 노력으로 사진에 대한 학리적 접근과 사진담론의 생산이 시도되기는 했으나 사진의 사회적 실천을 이끌어내고 예술사진운동을 전개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런 점에서 1964년 서라벌예술대학에 사진과가 설치된 것은 사진제도적 차원에서 그 의미는 매우 크다. 그것은 사진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진도 미술과 마찬가지로 기계적 복제기술을 넘어 예술학의 한 분야로서 미적 대상이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제 그때로부터 또 47년의 세월이 흘렀다. 사진교육 100여년에 즈음하여, 자신의 역사를 망각하거나 스스로 말하지 못함으로써 학문으로서의 정당성과 정체성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다.

해방 이후 한국사진교육 역사: 1945-1974

- 1948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3학점의 사진 과목이 정규 교과로 개설되었다.
- 1952년 한국전쟁 중 덕성여자대학교 가정과에 사진학 과목이 개설되었으며 강의는 정해창이 맡았다.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에 교양 필수 과목으로 사진학 강좌가 개설되었으며 강의는 임응식이 했다. 초창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사진 수업은 임응식과 성낙인이 담당했다.
- 1953년 이화여자대학교 교양 과목으로 예술사진이 개설되었다.
- 1954년 이화여자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내에 사진 전공 개설되었으며 이는 대학에 최초로 사진 전공이 개설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 1960년 이화여자대학교 미술학부가 미술대학으로 발족하여 사진 전공이 생활미술학과 내에 사진 전공으로 변경되었다. 1956년부터 1963년까지 임응식이 강의를 맡았으며 사진 전공은 텃생, 채광, 촬영, 현상, 인화 등의 수업으로 이루어졌다. 대학원 미술학과에 사진사, 사진실기 과목이 개설되어 임응식이 강의를 맡았다.
- 1961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 사진 과목이 개설되었다.
- 1964년 서라벌예술대학이 4년제 정규대학 인가를 받으며 서라벌예술초급대학 주간대학에 사진과가 창설되었다. 2년제 정규 초급과정으로 정원은 40명이고 초대 학과장은 김종양이 맡았다. 주요 강사진으로는 김종양, 이재화, 이경모가 있었으며 그 외에 박필호(YMCA 사진과 강의), 정희섭(세기사장, 한국사진협회 이사장), 임정식(오리엔탈 사진학교 본과 졸업), 박창희(경향신문 사진부 차장재직), 김채홍(삼화인쇄소 제판부장) 등이 강의를 했다. 수업과목은 촬영(김종호), 특수사진이론(김종양), 현상인화실기(박필호), 사진화학(이재화), 보도사진실기(박창희), 상업사진실기(이경모), 소묘(정영렬) 등이 있었다.

《제13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변일용(1회, <채석장 풍경>), 정동선(1회, <빛물 통기는 우정>), 황우중(2회, <눈오는 날>), 박창희(강사, <고립된 인가>)가 입선하였다.

- 1965년 서라벌예술초급대학 사진과와 일본대학 예술학부(사진학과장: 가나마루 시게네)간의 한일 교류전이 예총회관 화랑에서 있었다. 총 129점(한국: 30점, 일본: 99점)이 출품되었다.
- 《제14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 서라벌예술초급대학 사진과의 이종원(1회, <야상곡>)이 특선을 했고, 그 외에 김종양(교수, <추수>), 정동선(1회, <5월>)이 입상하였다.
- 《제1회 서라벌예술초급대학 사진과 졸업작품전》이 예총회관 화랑에서 있었다.
- 덕성여자대학교, 건국대학교에 사진 과목이 개설되었다.
- 1966년 서라벌예술초급대학 사진과 제1회 졸업자가 배출되었다. 졸업생은 다음과 같다. 김옥륜, 김용남, 김종환, 김현, 문예, 박수정, 박용목, 변일룡, 윤무창, 이을운, 이종원, 이부금, 임학권, 정동선, 정희중, 조의협, 황태삼.
- 《제2회 서라벌예술초급대학 사진과 졸업작품전》이 예총회관 화랑에서 있었다.
- 《제15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서라벌예술초급대학 사진과의 김영희(1학년 재학, <M주교의 기도>)가 특선을 받았으며 그외에 최종선(2회, <환상>), 한정숙(2회, <생의 원천>), 홍훈자(3회, <구성>), 한석홍(2회, <오수, 흔적>), 김인태(2회, <저녁 때의 로맨스>)가 입선하였다.
- 동아대학교와 서울여자대학교에 사진 과목이 개설되었다.
- 1967년 서라벌예술초급대학 사진과 제2회 졸업자가 배출되었다. 졸업생은 다음과 같다. 김인태, 김정호, 최종성, 한정숙, 김중기, 김광목, 박복선, 송재구, 채진우, 신동진, 김용일, 이완구, 한석홍, 황우중.
- 《제16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이종원(66년 졸, <영점지대>), 변일용(66년 졸, <계거품>), 김인태(67년 졸, <환상>), 김동훈(68년 졸, <성하의 연인>), 홍훈자(68년 졸, <애교>), 한명자(2학년 재학, <물장난>), 민병태(2학년 재학, <지하도 점경>)가 입상하였다.
- 1968년 서라벌예술초급대학 사진과 제3회 졸업자가 배출되었다. 졸업생은 다음과 같다. 강상일, 김동훈, 김상열, 김세남, 김시호, 김영환, 김홍섭, 서만근, 손영철, 윤성진, 이윤옥, 정훈, 임용순, 정임순, 이주연, 홍훈자, 허신환.
- 서라벌예술초급대학 사진과에서 부산, 대구, 대전, 전주, 광주, 인천, 청주, 춘천 등 순회 전시를 가졌다.

- 1969년 서라벌예술초급대학 사진과 제4회 졸업자가 배출되었다. 졸업생은 다음과 같다. 곽태형, 김도섭, 김문권, 김세현, 김수경, 김영만, 김용운, 김영희, 김종치, 김진곤, 민병태, 박금성, 박영숙, 박춘수, 박호연, 변충모, 송순균, 신세규, 안태준, 오순근, 류경선, 이동연, 이명숙, 이민우, 이일구, 이학열, 임숙자, 전기명, 조은순, 하정남, 한명자.
- 1970년 《제1회 대학미전》 사진부문에 서라벌예술초급대학 사진과의 김동희가 <10대의 소리>로 대상을 수상 하였다.
- 1971년 서라벌예술초급대학 총학생회장에 사진과의 홍건표가 당선되었다.
- 《제2회 대학미전》 사진부문에 서라벌예술초급대학 사진과의 권중인이 <비보>로 대상을 수상하였다.
- 1972년 서라벌예술대학에 2년제 초급대학과정 이외에 4년제 정규대학의 사진학과가 신설되었으며 정원이 30명 증원되었다.
- 1972년 6월 학교법인 중앙문화학원이 학교법인 서라벌예술학원을 인수, 합병하였으며 사진학과 초대학과장을 임응식이 맡았다. 수업과목은 작화론(임응식), 사진기계학, 대형카메라(류만영), 칼라사진, 사진화학(최익찬), 사진조형론(안준천), 사진사(육명심), 임정식(촬영실기), 현상인화실기 등이 있었다.
- 1974년 서라벌예술대학 4년제 사진학과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사진학과로 개명하였다. 서라벌예술초급대학의 2년제 사진과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78년 서라벌예술초급대학이 폐교되며 폐과되었다.
- 신구산업전문학교에 사진인쇄과 신설되었으며 정원은 80명이었다. 신구산업전문학교의 역대 과장은 이종호, 김규호, 육명심, 홍순태가 맡았다.

정리 : 황사라 /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연구원